

광양만청 '오락가락 행정'에 세풍산단 좌초 위기

기준 사업자 포기각서 제출 약속 반복 직권취소 않고 새 법인 설립 동의해줘 오는 8월말까지 착공 못하면 포기해야

광양만청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세풍산단 개발 사업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금융지원에 대한 조항의결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기장비, 1차금속, 금속가공 등의 업종을 유지하는 '세풍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민간 사업자의 개발 포기까지 착공하지 못하다가 2010년 6월 다시 사업자를 공모해 2011년 9월 사업 시행자로 (주)광양개발을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단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투입비 정산 과정에서 (주)광양개발이 부당한 자료를 제출해 정산비를 받으려 하는 등 문제가 되자 직권취소 후 사업자를 대체 지정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29%), 미래셋증권(41%), 부동산산타사(10%) 등이 참여하는 가칭 (주)세풍산단개발을 설립했다. 지난해 7월에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미분양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는 금융지원안을 확정하고 조합회의 임의회를 열어 금융지원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세풍산단개발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단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

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광양개발과 세풍산단개발 사이에 용역비와 설계비 등의 정산 합의가 안 된 데다 기존 사업자가 지정 취소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은 6개월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양만청은 광양개발의 사업 시행권 취소 등 행정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 법인 설립을 동의해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착수 기한 만료일은 지식경제부가 사업 인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어서 오는 8월 말이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세풍산단 예정지 주민들은 "기준

사업자가 더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데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 청구 등 진상조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광양개발 측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현재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올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産 수산물 안전합니다"

市, 수산업계·재래시장 상인들과 담화문 발표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관련 오해 불식 전력

여수시가 수협 등 지역 수산업계와 관광업계,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여수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우이산호 출몰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오해 불식을 전력하고 있다. 13일 여수시는 "1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충서 여수시장장을 비롯해 김형주 여수수협장, 여수시 전통시장상인회장, 지분순 여수관광개발회장 등 6개 기관·단체 대표가 함께 '우이산호 출몰 유류 오염사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담화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과 수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지만 여수라는

지역 명칭이 사고 대명사처럼 쓰이면서 여수 앞바다가 온통 기름으로 오염된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역 수산업계와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박람회 성공 개최 도시 여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수 수산물의 생산자인 가막만, 여자만, 장수만은 이번 기름유출 해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여수산 어패류 등 수산물은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여수지역 수산업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

곡성군-의정부시 자매결연 농산물 300여 품목 직거래 4년 새 16억 농가소득 올려

곡성군이 경기 의정부시와 농산물 직거래를 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와 자매결연해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 11개 읍·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동(洞) 주민들에게 멜론, 사과, 배, 햅쌀, 표고버섯 등 농산물 300여 개 품목을 판매해오고 있다. 2010년 21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4억1000만원, 2012년 8억7400만원, 2013년 3억4700만원 등 4년 동안 총 16억54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100세 시대' 여성 체조교실 인기. 지난 10일 보성군 별곡읍에서 열린 '유쾌한 건강 지킴이 성인여성 체조교실'에 참가한 주민들. 보성군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7개 읍·면에서 매주 두 차례씩 1시간에 걸쳐 체조교실을 열고 있다. <보성군 제공>

전북

전주 '6지구' 옛 명성 회복 기대 아파트·도서관 등 속속 건립

공공기관의 잇따른 이전으로 공도화가 심화한 전북 전주시 6지구에 최근 대체시설 등이 속속 입주,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빈 건물로 남아있는 옛 완주군 청사를 철거한 원광건설(주)은 이 자리(1만3000여㎡)에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옛 한국토지공사 건물에는 이미 전주시의 작은 도서관과 지역 신문사가 입주했고 모자보건센터도 옛 주택공사에 새 동지를 틀었다.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한 옛 전북체신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건물에도 각각 동전주우체국과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부가 이전했다. 예초 이곳은 1980년대 전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1~9지구)의 하나로 인후2동과 금암동 등을 포함한 지역이지만 동이나 거리 명칭보다 통상 '6지구'로 불리었다. 이때 조성된 6지구에는 완주군청을 비롯해 농업 전북지역본부, 한국전력 전북지사, 전북지방조달청, 옛전북체신청,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 한국농촌공사 전북본부 등 공기업과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10여개 기관이 밀집했다. 덕분에 전주에서 뜰까 가라면 서운할 정도의 장관을 형성, 지난 20여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관공서들의 이전과 함께 주변 상인들도 동반 이전하거나 생업을 접으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한 이곳에 최근 지자체나 공기업의 대체시설, 아파트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그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원광대 한방병원 문닫나" 익산시 '술렁'

학생·교수 등 400여명 결정 철회 촉구 집회 원광학원 "병원 경쟁력 강화 차원 통합 강행"

원광대 이전설에 이어 원대 한방병원 폐원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 익산시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난해 원광대 전면 이전설이 퍼졌으나 대학 측은 일단 제2캠퍼스 설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세현 총장은 "이제 지방대학이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며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생존 방안을 검토했지만 원광대가 전면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는 입학정원 690여명의 공과대학을 수도권으로 옮겨 제2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전설에 이어 원광학원이 지난달 말 의과대학병원, 익산 한방병원, 산본 의대병원, 산본 한방병원을 통합한 '통합 양방병원'을 설립하기로 하자 학내 구성원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학생 등으로 구성된 원광대 한의

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허울뿐인 통합'이라며 통합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학교 측은 익산·산본 한방병원을 이달 말까지 폐원하라는 무책임한 결정만 내렸을 뿐 이후 인력 재배치와 투자계획 등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말만 번지르르한 양·한방 통합병원이지만 이는 의대병원의 한 과로 한의과가 들어가는 실질적인 의대 흡수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학생과 교수 등 400여명은 12일 원광대에서 집회를 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원광학원은 병원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통합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원광학원 측은 "통합의학을 선도하고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을 결정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원광대 이전설에 이어 원대 한방병원 폐원까지 사실상 결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원광학원이 지역의 상징적인 병원인 한방병원을 존치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길 기대한다"라며 폐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파랑새의 꿈, 안중근' 아트퍼포먼스. 우석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지난 12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과 독립군의 항일과정을 태권도로 재연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는 15일과 22일에도 우석대 아트홀에서 태권도 품새와 연기를 조화시킨 아트퍼포먼스 '파랑새의 꿈, 안중근'을 선보인다. /연남뉴스

단신

부안군수,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고소 기각

김호수 부안군수가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관련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까지 모두 기각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지역언론사 보도와 관련 작성한 A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하지만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해 7월 혐의없음 결론을 냈고, 이에 김 군수가 다시 전주지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김 군수는 검찰 수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말 전주지검에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지난 10일자로 다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남원시, 한국관광클럽 회원 초청 팸투어

남원시는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관광클럽 회원 40여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팸투어를 통해 주요 관광지개발, 공연·체험활동 등 테마별 상품을 개발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팸 투어는 한국관

광클럽과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팸투어를 계기로 일반 관광객, 청소년 수학여행단체, 코레일과 연계한 패키지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부안군 농어촌버스 요금 18일부터 인상

부안군은 13일 "농어촌버스 요금을 오는 18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본 구간인 7km 이내는 1300원으로, 150원 오르며 이후에는 km당 8.3원 오른 116.14원이 적용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1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운송원가 상승으로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순창,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기업 2곳과 투자 양해각서

순창군은 13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기업인 한화큐셀코리아(주), 주식회사 티에너지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한화큐셀코리아(주) 김승무 상무, 주식회사 티에너지 김경문 대표,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방축마을 손원기 대표와 100% 에너지자립 전시기

금관마을 이선형 대표, 클린순창 웰빙마을 조미경 대표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큐셀코리아(주)와 주식회사 티에너지는 38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순창군 내 마을 공동시설이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